

지역 소식통

김제사랑장학재단

연말 장학금 기탁 이어져

연말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에 장학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에는 김제 시내버스 안전여객 기업노조(위원장 조두섭)에서 장학금 200만원을 8일에는 김제시 재향군인회(회장 전진석)에서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제 시내버스 회사인 안전여객은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43대 버스의 차량으로 관내 곳곳을 누비며 시민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친절할 서비스와 양질의 버스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스마트농업

현장활용 경진대회 대상

지난 7일 aT센터(양재)에서 농협중앙회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개최된 '제2회 농업인과 함께하는 스마트농업 현장활용 경진대회'에서 김제청년단체 '팀빠머 팀(김기현, 임서원, 고택균)'이 '스마트팜 자유공모' 부문에서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스마트농업 현장활용 경진대회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연구개발과 보급 확산 촉진을 위해 진행되며, '스마트팜 작물재배 및 기숙사양', '스마트팜 자유공모' 2개 부문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의 서면 및 현장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빠머'는 데이터 정보 수집·정리를 토대로 토마토 재배 시기를 조절하는 기술을 통해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선보였다.

팀빠머의 일원인 팜큐베이터 김기현 대표는 "김제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도전&도약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아 디지털 직무 관련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여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내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지방자치경쟁력 '최상위'

10위서 1위로 상승, 전국 군단위 평균 크게 웃돌아

완주군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해 평가하는 지방자치경쟁력 지수에서 전국 군단위 1위 인증을 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8일 완주군은 2023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분석 결과 종합경쟁력 부문 전국 1단위를 기록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사)한국

지방자치연구원이 1996년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통계연보와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공식통계자료 등을 전수 분석해 지자체별 종합경쟁력을 수치화한 지표다.

평가는 경영자원(300점), 경영활동(300점), 경영성과(400점) 등 3개 부분의 지표를 합산해 지자체별 경쟁력을 1,000점 만점으로 산정한다.

완주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대비 약 40점이 오른 종합점수 535.4점을

기록해, 전국의 쟁쟁한 지자체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는 전국 군단위 평균(443점)과 전북도 평균(469.2점)을 웃도는 수치이며, 전국 순위로 따지면 지난해 대비 9계단 상승했다.

특히, 완주군은 큰 점수 차이가 나지 않는 군단위에서 2위 지자체인 기장군과 15.6점의 큰폭의 점수차를 벌려,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줬다.

완주군은 민선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비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문화·복지 등 군정 전반에 전심전력을 다한 결과, 이 같은 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기현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대표이사는 "그동안 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완주군처럼 순위권 내에서 큰 폭으로 순위가 상승한 것은 흔치 않은 사례"라며, "완주군은 도시인프라, 산업인프라, 보건복지, 문화교육 등 총체적인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를 통해 완주군이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자치체임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10위에서 1위로 순위가 수직 상승한 것은 민선8기 완주호가 성공적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은 2023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분석 결과 종합경쟁력 부문 전국 1단위를 기록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정성주 김제시장, '최우수 자치단체장' 영예

호남유권자연합 주관 선정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8일 호남유권자연합 창립 29주년 시상식 및 송년 행사에서 '2023 최우수 자치단체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0년 5월에 설립되어 정치 개혁과 도덕성 회복 운동을 펼치고 있는 호남유권자연합은 한 해 동안 도덕적 능력과 뛰어난 행정 리더십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을 선정해 표창해오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제시 최초 국가예산 1조원 시대 개막 △김제시(주)R E&I-미국 MEC사 간 대규모 수출계약 △전략적 기업 유치로 738억원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266개 창출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와 제17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제시 최초로 대기업 (주)산

과의 투자협약 체결과 (주)R E&I, 미국 MEC사 간 건설장비 1조 3천억원의 수출 업무협약과 6천 5백만원의 수출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김제시 농생명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종자생명산업특구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김제형 푸드플랜, 그리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새만금 중심도시로서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환경부 배출업소 환경관리 평가 '장관상' 표창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2023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 평가'에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

리 역량 강화와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관리실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시·도와 228개 시·군·구 총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배출업소 점검률, 위반율, 오염도 검사 등에 대해 평가

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는 배출업소 수 등을 고려해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김제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점검률 100%, 위반율 29.7%, 고발률 30%의 실적으로 44개 지자체가 속한 그룹 중 3위를 차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동 산업단지에서 위치한 (주)참고을에서 김제시에 이웃돕기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참고을, 김제시에 성금 1억 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순동 산업단지에서 위치한 (주)참고을(대표 김운권)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성금 1억 원을 기탁하며 나눔을 통해 사랑의 온도를 올리는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주)참고을은 2015년부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전북 1호 나눔 명문기업으로 올해도 김제시에 1억 원을 기부하며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 사랑을 이어오고 있다.

(주)참고을 김운권 대표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환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기탁하게 됐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아름다운 기부를 계속해주시는 (주)참고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하신 성금은 관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참고을은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지와 전통 장류를 생산하고 있는 종합식품 제조회사로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 상상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맛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제5회 농한기 영화제' 개최

11~16일까지 완주미디어센터

바쁜 농번기 철이 지난 농한기, 완주군에서 영화가 펼쳐진다.

완주미디어센터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지원하고 고산관비농사두레가 진행하는 '제5회 농한기영화제'가 완주미디어센터에서 11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올해 영화제는 주관기관이 주도해 오던 지난 행사와 달리 주민공동체 '비농사두레'가 작품 선정과 진행을 맡았다. 비농사두레는 전업농부터 레저농까지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농사공동체로 농사 협업뿐 아니라 공부 모임, 정월대보름 행사 등 다양한 농번기, 농한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센터에서는 11일 월요일 '위대한 작은 농장'을 시작으로 12일 '다섯 번째 흥주', 13일 '행복의 속도', 14일 '괴인', 15일 '버려내고 존재하기'까지 매일 저녁 7시 독립영화 한 편을 상영한다. 상영이 끝나면 비농사

두레가 주도하는 소감 나누기와 뒤풀이가 이어진다. 이어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완주미디어센터가 제작 지원한 단편영화 '대간선수로'와 '핑계' 시사회가 열린다.

'대간선수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원회 공모사업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이며, '핑계'는 지역 주민이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자와 스태프로 참여한 로컬시네마다.

11일과 15일 오후 2시부터는 영화상영과 특강을 결합한 '미디어인문학'이 예정돼 있다.

미디어인문학은 미디어를 매개로 인문학을 들여다보고자 기획한 완주미디어센터 연중기획 교육프로그램이다. 11일에는 지역활동가 심미연 씨가 영화 '너티무 아예'를 함께 보고 환경과 미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며, 15일에는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임혜령 씨가 올해 무주산골영화제 상영작인 자신의 영화 '종 B에'를 통해 철학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